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 년 1 월 31 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 의 영향을 입은 업소들에게 최대 4,300 달러를 절약시켜 주는 무료 안전 및 건강 검사를 발표

주지사의 프로그램으로 복구 업소들은 수 천 달러 절약 가능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 의 영향을 입은 업소들에게 무료 현장 안전 및 건강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노동부의 안전 및 건강 검사관을 타격이 큰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소기업에 수 천 달러를 절약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무료 서비스는 폭풍의 영향을 심하게 입은 고용주들이 가능한 한 속히 그들의 문을 다시 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업소들은 1-888-4-NYSDOL(1-888-469-7365)로 전화하거나 www.labor.ny.gov/workerprotection/safetyhealth/safetyhealthtourism.shtm 을 방문하여 무료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우리 주 경제의 주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케인 Sandy 로 인해 타격을 받은 업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업소들이 다시 기운을 차림에 따라 우리는 직원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원합니다. 본인은 허리케인 Sandy 의 영향을 입은 모든 업소들이 무료 검사를 예약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지사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 건강 검사관들에게 영향을 입은 폭풍 지역의 업소로 출장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업소들이 식별된 위험을 최소화, 제거 및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2011 년 이래 노동부는 840 명의 고용주들에게 무료 안전 상담을 제공하여 그들 각각은 평균 $3,750~$4,375 를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461 명의 고용주들에게 무료 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은 평균 $1,200~$1,400 를 절약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업소들은 작년에 벌금 가능액 750 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특히 허리케인 Sandy 로 인해 손상된 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에 필수적입니다”라고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인 Peter M. Rivera 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안전을 향상하고 업소들을 도와 심각한 위험이 해결되는 한 벌금이나 위반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